

# Cutter의 전개분류법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Cutter's Expansive Classification

곽철완 (Chul-Wan Kwak)\*\*

### 목 차

- |                          |                         |
|--------------------------|-------------------------|
| 1. 서론                    | 3.1 주류의 배열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기호법 사용              |
| 1.2 선행연구                 | 3.3 장서 규모에 따른 분류표 전개    |
| 2. Cutter의 생애와 분류에 대한 사상 | 3.4 지역구분(local list) 적용 |
| 2.1 생애                   | 3.5 전개분류법의 평가           |
| 2.2 분류에 대한 사상            | 4. 결론 및 제언              |
| 3. 전개분류법의 특징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Cutter의 전개분류법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류법 평가와 관련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전개분류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주류 배열은 철학과 종교, 역사와 지리,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예술, 언어와 문학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 순서가 논리적이며 진화적이다. 둘째, 기호법은 문자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이며, 저자기호법을 포함시켰다. 셋째, 7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표는 자연과학 분야가 전개되었고, 제3표부터는 전 주제 분야로 확산되었다. 넷째, 지역구분을 적용하였는데, 대륙별로 지역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나열하였다.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utter's Expansive Classification. The four elements about classification evaluation were applied to analyze it. Results show that first, from philosophy and religion class to literature class, the order of main classes is logical and evolutionary. Second, the notation is a pure notation including author mark. Third, the classification is expansive from first classification to seventh classification. Science classes were expanded in the second classification comparing to the first classification. From the third classification, all classes were expanded. Fourth, it was applied by the local list to indicate places emphasizing connection of geographical space.

키워드: 전개분류법, 카터, 도서관분류법, 분류법 역사, 분류법 평가

Expansive Classification, Cutter, Library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History, Classification Evaluation

\* 본 연구는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249-265,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24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도서관의 많은 장서가 디지털화되었지만, 장서의 서가 분류 및 검색 도구인 분류표는 아직도 도서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이나 한국십진분류법(KDC)은 전 학문 영역을 대상으로 주류를 구분하고, 각 주류별로 하위 영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제를 포함하는 도서관에서는 DDC나 KDC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주제를 포함하는 분류법의 장점은 반대로 도서관 장서의 규모에 따라 분류기호의 효율적인 사용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장서규모가 100만권 이상인 도서관과 1만권 미만인 도서관이 동일한 분류기호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DDC는 이 모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략판을 따로 발간하고 있으며, KDC에서는 도서관 장서의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분류기호를 전개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명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sup>1)</sup> 이는 분류표에는 학문 영역을 기준으로 주제가 세분되어 있지만,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짧은 분류기호를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분류기호를 사용하자는 의미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Cutter는 도서관 장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개분류법(Expansive Classification)을 발표하였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서의 출판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도서

관의 장서량도 급속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개관하던 시기였다. 소규모 지역 공공도서관부터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이 운영되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도서관은 처음 도서관을 개관할 때는 장서량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장서량이 증가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Cutter는 이러한 다양한 도서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분류법을 창안하였다. 여기에서 왜 Cutter가 새로운 분류법을 만들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개분류법과 다른 분류법과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특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선행연구

전개분류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개분류법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 채택하지 않아서 연구가 지속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전개분류법에 대해 분석적인 연구는 Sayers(1915-1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Sayers는 주제분류법(SC), 전개분류법, DDC,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4가지 분류법 중에서 Sayers는 전개분류법이 SC와 함께 주류 구분과 배열이 진화적이며 논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Miksa(1974)는 Cutter를 주제로 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으로 전개분류법을 포함

1) 한국십진분류법에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요목표 사용 혹은 본표를 사용하더라도 분류 담당자가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켰다. Miksa는 전개분류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연대순으로 기술하였다. 전개분류법의 기호법의 특징을 계층구조가 아니라 순차적이며, 조기성을 유지하며, 주제를 기초로 세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구분표에서 11-99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한점에 대해 나열하였다. Cutter가 생각하는 전개분류법의 장점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호법의 적응성과 단순성, 분류체계의 논리적인 순서, 사용상에 있어서 유연성이 포함된다.

Winke(2004)는 전개분류법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의 57개 도서관이 전개분류법을 사용했으나, 2002년 현재 4개 도서관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분류법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대부분의 도서관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전개분류법을 채택하였으며, 다른 분류시스템으로 변경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 진행되었다. 채택한 새로운 분류시스템은 LCC와 DDC가 양분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와 Weihs(2010)는 분류법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였는데, 전개분류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탄생한 분류법 중 가장 논리적이며 학술적인 분류법 중 하나라 평하였다.

## 2. Cutter의 생애와 분류에 대한 사상

### 2.1 생애

우리에게 사전체목록규칙(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 저자로 더 알려진 Cutter

는 분류 분야에서도 도서관계에 큰 공헌을 하였다. Cutter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2살 때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미혼인 3명의 고모들과 함께 성장했다. 고모들은 부유해서 후일 Cutter에게 하버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중 한 고모가 보스턴의 도서관 사서여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다. Cutter는 하버드 대학을 3등으로 졸업하고 키워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하버드 신학대학에 입학하였다.

하버드 신학대학 재학 중 도서관에서 Cutter는 목록작업을 하였고, 1860년에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목록분야 직원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하버드 대학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었으며, 목록 분야 책임자이었던 Ezra Abbott 박사와 함께 당시 다른 도서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목록시스템이었던 카드목록을 적용하였다. 1868년 Cutter는 당시 대표적인 회원제 도서관인 Boston Athenaeum 사서로 임명되어 그곳에서 25년간 봉사하였다. 이곳에서 Cutter는 사전체목록규칙을 발간하였고, 1880년 전개분류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전개분류법 연구에서 저자기호로 사용되는 Cutter Numbers를 창안하였다(Stromgren 2004). Winke(2004)는 Cutter의 3대 업적으로 사전체목록규칙, 전개분류법, Cutter Numbers를 들고 있다.

1894년 Forbes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Cutter는 도서관 운영 방침을 '누구에게나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기간 동안 대출하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였으며, 당시 실험적으로 개가제 서가를 운영하였다. 또한 Cutter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실천

하였는데, 분관을 설립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 하기도 하였고, 도서관에 미술 및 음악부서를 만들고, 어린이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였다. Stromgren(2004)은 Cutter와 Dewey는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Dewey는 유명해졌지만, Cutter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이유를 Cutter는 전개분류법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결론지었다.

## 2.2 분류에 대한 사상

Cutter(1891-93, 4)는 도서관 분류는 목록의 보조적인 도구이지만, 분류 체계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서가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목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을 위해 목록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분류를 통해서 보다 완벽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의 서가 분류의 목적을 한 주제에 관한 도서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기 위함이라 정의 내렸는데, 분류는 이용자가 해당 주제에 관한 모든 도서를 찾거나 혹은 가장 적합한 도서를 선택할 때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검색할 때, 저자명 혹은 서명을 접근점으로 사용하지만,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주제만 기억날 수도 있다. 이때, 분류는 주제만 기억할 때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한다(Cutter 1891-93, 4). 이처럼 Cutter는 목록의 역할과 분류의 역할을 구분하고, 만약 분류법이 잘 만들어져 있고, 도서가 적합한 곳에 분류되어 배열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굳이 목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Cutter는 도서관 사서는 도서의

특징을 잘 분석하여 정의 내리고, 잘 정의 내려진 클래스에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도서를 여러 측면(예, 저자명, 서명, 주제명 등)에서 분석하는 목록학자로서 Cutter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Cutter(1891-93, 5)는 서가 분류의 단점에 대해 모든 도서가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범주 이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어느 범주에 가서 원하는 도서를 찾을 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주제 목록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도서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Cutter는 도서관에서 분류만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의 주제를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분류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원하는 도서를 서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시에 분류 범주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이용자는 원하는 도서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Cutter가 전개분류법을 발표하던 19세기 말에 과학 분야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학문 분야가 어느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분류의 단점은 목록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Cutter 1891-93, 5). 만약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정 주제의 도서 모두를 찾으려고 한다면 목록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서가 분류법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개별 주제의 도서 모두를 한 곳에 모을 수가 없다. 일부 도서는 여러 주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본이 각각 주제에 배열되지 않는 한, 한 곳에 배열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이용자가 분류를 이용할 때, 목록과 연결하여 이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Cutter(1891-93, 5)는 도서관에서 분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이용자가 서가에서 도서를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19세기말 미국 대부분의 지역 소규모 도서관에서 이용자는 도서관 직원에게 도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서관 직원은 도서를 서가에서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서가에서 직접 찾으면, 사서는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를 서가에서 찾아 제공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이용자에게 도서를 추천하거나 도서를 찾는 데 도와줄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게 된다. 도서관에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래된 사서는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의 위치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서가 퇴직하면서 신규 사서를 임용할 때, 소장 도서의 위치에 관한 지식을 후임 사서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갖춘 도서관의 경우에 신규 사서는 짧은 시간에 개별 도서의 서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Cutter의 분류에 대한 생각은 Forbes 도서관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개가제서가에 반영되었다.

### 3. 전개분류법의 특징

#### 3.1 주류의 배열

20세기 초 도서관의 분류방법에 대해 연구한

Sayers(1915-16, 69)는 전개분류법을 Brown의 SC와 비교하면서 전개분류법의 주류 배열(<표 1> 참조)이 SC의 주류 배열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혹은 진화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개분류법 주류 배열에 대해 Sayers(1915-16, 70)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리적이라 주장하였다.

미개인이 미개한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걱정하게 되고, 미개인이 국가의 정체성 혹은 역사를 깨달은 후에는 개인의 정체성 혹은 전기를 알게 된다. 지리 혹은 그의 국가와 관련 있는 주변 환경의 지식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생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과학, 즉 지역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자연적으로 국가적 사회 집단의 요구가 생겨난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 배경으로 산업이 자연적으로 발전되고 인간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리하여 의학, 산업, 기술과 순수 예술 등이 합해진 자연과학과 예술이 존재한다.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사고가 합리적으로 보존되는 단계이며, 글쓰기를 통한 기록의 단계이다. 이것들은 순수 문학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다.

Brown의 SC는 혼돈의 세계에서 물질과 힘의 세계로, 생명, 정신, 정신적 산물인 기록의 세계로 전개분류법과 마찬가지로 진화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Sayers 1915-16, 69). SC를 전개분류법과 비교하면, 자연과학을 사회과학 다음에 위치시키면 전체적인 클래스의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Cutter가 1893년 전개분류법을 발표할 당시 미국에서 DDC는 1876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

〈표 1〉 전개분류법, 주제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의 기본 클래스 비교

Expansive Classification		Subject Classificati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Works of reference [생략]	A	Generalia	0	(General)
B	Philosophy and Religion	B-C-D	Physical Science	100	Philosophy
E	Biography	E-F	Biological Science	200	Theology
F	History and Geography and Travels	G-H	Ethnological and Medical Science	300	Sociology
H	Social sciences	I	Economic Biology and Domestic Arts	400	Philology
L	Natural sciences and Arts	J-K	Philosophy and Religion	500	Natural Science
Y	Language and Literature	L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600	Useful Arts
Y <sub>F</sub>	Fiction	M	Language and Literature	700	Fine Arts
		N	Literary Forms	800	Literature
		O-X	History, Geography, Biography	900	History

출처: Cutter, C. A. 1891-93. Expansive Classification: Part 1: the first six classifications, Boston, p. 2.  
 Brown, James Duff.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London: The Library Supply, p. 11-12.

후 1891년에는 4판을 발행한 상황이었다. DDC 초판에 의하면 학문 영역별로 구분한 주 클래스 9가지는 9개의 특수 도서관(special libraries)을 위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Dewey 1876). Cutter의 생각은 주 클래스 구분과 분류의 목적에 있어서 Dewey와 생각이 달랐다고 보인다. 이 차이점은 주 클래스 구분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분류표의 전개라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개분류법과 DDC의 클래스 구분에서 큰 차이점은 DDC에서 언어와 문학을 분리한 것과 사회과학과 역사를 분리한 점이다(Sayers 1915-16, 84).

전개분류법은 LCC와 주류 배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2). LCC는 21개의 주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개분류법 제3표의 25개 주 클래스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예술과 문학이 LCC에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전개분류법에서는 기술과학 다음에 위치해 있다. 그 외의 주류 배열 순서는 유사하다.

도서 배열에 있어서 Cutter는 주류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할 필요가 없고 도서관 장서가 한 공간에 다 모여 있다면, A 클래스는 대출대 옆에 위치시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설류 Y<sub>F</sub> 클래스는 대출대 반대쪽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Cutter 1891-93, 10). 하지만, 장서가 많아 여러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클래스를 배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체적인 도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서의 서가배열에 있어서 한 서가에 한 클래스를 배정하면 한눈에 해당 클래스 전체를 브라우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며, 각 클래스 사이에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브라우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표 2〉 전개분류법 제3표와 미의회도서관분류법과 주 클래스 비교

전개분류법 제3표	미의회도서관분류법
A Works of reference [...]	A General works
B Philosophy	B Philosophy, Psychology, Religion
C Christian and Jewish religions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D Ecclesiastical history	D World history and history of Europe [...]
E Biography	E History of the Americas
F History and subjects allied	F History of the Americas
G Geography and Travels	G Geography, Anthropology, Recreation
H Social sciences	H Social sciences
I Sociology	
J Government, Politics	J Political science
K Legislation, Law, Woman, Societies	K Law
L Science in general, and Physical sciences	L Education
M Natural history in general, Microscopy, Geology, Biology	M Music and books on music
N Botany	N Fine arts
O Zoology	P Language and literature
Q Medicine	Q Science
R Useful arts in general, [...]	R Medicine
S Engineering and Building	S Agriculture
T Manufactures and Handicrafts	T Technology
U Defensive and Preservative arts	U Military science
V Recreative arts: Sports, Theatre, Music	V Naval science
W Fine arts	
X Language	
Y Literature	
Z Book arts	Z Bibliography, Library science, Information resources

출처: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Outline. <<http://https://www.loc.gov/catdir/cpsolcco/>>

### 3.2 기호법 사용

전개분류법에서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가 적용되었다. 분류기호에는 세 가지 기호법이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기호법은 일반적인 경우로 문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가 적용된다(Cutter 1891-93, 6). 문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사용되는데, 주제나 문학 형식을 구분하는 클래스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G는 Geography and Travel을 표시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

는 대주제를 나타내며 두 번째 문자가 부가되면 해당 주제의 하위주제 클래스를 나타내며, 세 번째 문자는 하위주제 클래스의 한 영역을 나타낸다. 주제가 세분화되면서 문자는 계속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자리 숫자는 동일한 클래스에서 도서의 형식구분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사전 혹은 백과사전은 '5'로 표시되며, 도서기호 앞에 표시된다(〈표 3〉 참조). 두 자리 숫자는 동일한 클래스에서 지역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39'로 표시된다.

〈표 3〉 전개분류법의 형식구분

1 Theory	6 Handbooks
2 Bibliography	7 Periodicals
3 Biography	8 Societies
4 History	9 Collection
5 Dictionaries	

출처: Sayers, W. C, Berwick, 1959.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London: Andre Deutsch, p. 148.

두 번째 기호법은 첫 번째 기호법과 달리 지역을 두 자리 숫자로 구분하는 대신 알파벳 모음을 사용하여 클래스를 표시하는데 모음 다음에 다른 문자가 부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E로 표시되는데, F가 History이므로 영국의 역사는 FE로 표시한다. 셋째 기호법은 지역 구분을 위해 두 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대신 하나의 문자를 사용하며, 문자 다음에 다른 문자가 부가될 수 있다(Cutter 1891-93, 7). 두 번째 기호법과 세 번째 기호법의 차이점은 두 번째 기호법은 문자가 모음만 사용되지만, 세 번째 기호법은 모든 문자가 사용된다.

도서기호에 대해서 Cutter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수순 번호(accession number)로 도서가 입수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서가에 배열할 때 논리적이 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클래스의 입수순 기호(accession mark of the class)가 사용되는데, 이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 입수순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서가 배열에 있어서 앞의 입수순 번호와 같이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셋째, 저자 첫 자리에 입수순 번호를 부가하는 방법(accessions number of the initial)은 도서 저자의 알파벳 첫 글자에 입수순 숫자를 첨가하는 방법이다. 이름이 M으로 시작하는 저자

의 첫 번째 도서에 1을 부여하고, 다음에 입수되는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넷째, 전개분류법에 적용한 것으로 저자기호 시스템이다(Cutter 1891-93, 12-13).

저자기호법에 대해 Cutter(1891-93, 139)는 서가에 특정주제 분야의 도서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할 때 가지는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도서의 저자 이름을 알고 있다면, 굳이 목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설의 경우 저자의 알파벳 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소설과 같이 한 클래스에 많은 도서가 포함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다. 둘째, 저자의 모든 도서를 개인 저자별로 모을 수 있으며, 특히, 이 방법은 문학작품에서 더 유용하다. 만약 입수순 번호를 사용한다면 동일 저자의 도서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다른 클래스에서도 저자기호법이 편리할 수 있지만 도서 양이 많아지면 논리적인 순서가 깨지게 된다. Cutter는 모든 도서관이 저자기호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가제 서가를 운영하지 않고 폐가제 서가를 운영한다면 저자기

호법은 장점이 많지 않다고 보았다. 10만권 장서를 가지고 개가제 서가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저자기호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장서가 많은 클래스에는 도움이 되지만, 많지 않은 클래스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 클래스에 장서가 많아 여러 서가에 배열되어 있다면 저자기호법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경우는 저자명 첫 글자에 숫자를 첨부한 방법(오늘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Cutter는 오늘날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구기호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을 2단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3단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즉, 첫째 단은 분류기호, 둘째 단은 저자기호, 셋째 단은 동일 저자의 작품일 경우 저작기호를 삽입하며, 복본일 경우 숫자를 저작기호에 부가한다. 오늘날과 차이점은 셋째 단의 사용인데, 후일 카터-샌본 저자기호표(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에는 둘째 단에 저작기호를 저자기호에 부가를 명시하고 있다. Cutter의 검색 도구로써 분류에 대한 생각은 분류기호법에 저자기호법을 포함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전개분류법은 DDC와 달리 분류법에 저자기호법을 포함시켜 개별 자료에 개별화된 분류기호 더하기 저자기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개분류법에는 저자기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존재한다. Cutter는 자료의 형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호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도서의 크기를 중요시 여겼다. 도서의 크기가

25cm 이하인 경우, 25-30cm인 경우, 30cm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O(•), Q(+), F(∥)로 표시하였다. Cutter가 도서의 크기를 중시한 이유는 19세기 말 당시 미국의 도서관에 오래된 도서들 중 크기가 큰 도서가 많이 있어서 도서관에 따라 별치해서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밖의 기호로는 발행연도, 번역본(예, •E는 영어로 번역된 일반 크기의 도서), 해설서(예, •Y), 사전(•Z)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호는 오늘날 별치기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도서기호에 포함되어 사용되기 하지만, 당시 Cutter는 청구기호에 도서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3 장서 규모에 따른 분류표 전개

전개분류법은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한 7가지 분류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표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Cutter가 전개분류법이라 칭한 이유는 분류표가 제1표를 기준으로 제2표, 제3표로 옮겨가면서 각 클래스가 더 세분화되면서 전개되어 제7표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Cutter는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라 처음에는 규모에 적합한 분류표를 사용하다가 점점 더 세분화된 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예를 들면, 장서량이 적은 초기에는 제1표를 사용하다가 장서량이 증가하면서 제2표, 제3표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게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전개분류법의 제1표는 기본 분류표 구조를 약간 변경하여 7가지 주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E(역사)를 E(전기), F(역사), G(지리 및 여

행)로 구분하여 9가지 주 클래스로 나누고, 여기에 Y<sub>F</sub>(소설)를 추가하여 10개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제2표는 총 14개 주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개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표에서 과학 및 예술 분야인 L이 M, Q, R, V, W로 전개되고, F(역사)와 G(지리와 여행)에서 지역구분이 되었다. 제1표에서 제2표로 전개는 자연과학과 예술분야를 확대시키고 있다(〈표 4〉 참조).

제3표는 총 25개 주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개 클래스(B, F, G, Y)는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철학 및 종교)에서 C와 D(기독교)로 전개되었고, H(사회과학)에서 I(사회학), J(행정, 정치), K(법, 여성, 사회)로 전개되었다. M(자연사)에서 N(식물학), O(동물학)로 전개되고, R(유용한 예술)에서 S(기술 및 건축), T(제조), U(군사학)로 전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Y(문학)는 Z(도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B 클래스에서 종교를 세분화시켜 하위 클래스를 만들었다. 제4표부터는 주요 클래스에 하위 클래스를 전개하고 있다(〈표 5〉 참조).

전개분류법의 핵심은 도서관 장서 규모에 따

라 적합한 '표'를 사용하며, 장서가 증가하면 보다 세부적인 '표'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소규모 도서관에서 체계적인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분류기호를 사용하다가, 장서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류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utter는 전개분류법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재분류한다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Cutter(1892-3, 22)는 재분류에 대해 매우 쉽게 생각한 것 같다. Cutter는 클래스 E를 예를 들었는데 E 클래스는 E, F, G로 나누어진다. 장서가 증가하면 E 클래스에 포함된 도서는 변화없이 그대로 남겨두고 F와 G 클래스에 분류될 도서만 선택하여, 분류기호를 E에서 F나 G로 바꾼다. 이때, 저자기호는 바꾸어줄 필요가 없지만, 목록의 분류기호는 모두 바꿔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이 초기 분류표를 사용하는 중에, 일부 분야의 도서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때는 그 분야만 새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새로 적용할 분류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한 분야에 재분류해야 한다. 나머지는 더 성장될 때까지 초기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한 도서

〈표 4〉 전개분류법 제1표에서 제2표로 전개

제1표			제2표	
F	History	⇒	F	지역구분
G	Geography and Travels	⇒	G	지역구분
L	Sciences and Arts, both Useful and Fine	⇒	L	Physical sciences
			M	Natural history
			Q	Medicine
			R	Useful arts
			V	Recreative arts, Sports and games, Theatre, Music
			W	Fine arts

〈표 5〉 전개분류법 제2표에서 제3표로 전개

제2표		제3표
B Philosophy and Religion	⇒	B Philosophy
		B <sub>R</sub> Religion and Religions(except the Christian and Jewish)
		C Christian and Jewish religions
		D Ecclesiastical history
H Social science	⇒	H Social sciences
		I Sociology
		J Government, Politics
		K Legislation, Law, Woman, Societies
L Physical sciences	⇒	L Science in general, and Physical sciences
M Natural history	⇒	M Natural history in general, Microscopy, Geology, Biology
		N Botany
		O Zoology
R Useful arts	⇒	R Useful arts in general, Metric arts, Extractive and productive arts, Chemical and Electrical arts, Domestic economy
		S Engineering and Building
		T Manufactures and Handicrafts
		U Defensive and Preservative arts
Y Literature	⇒	Y Literature
		Z Book arts

관에 영국 역사에 관한 도서가 분류기호 F<sub>45</sub>를 사용하며 단지 20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새로 1,000권을 기증받았다고 하자. 영국 역사에 관한 1,000권의 도서는 시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에 관한 도서도 양의 비율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3.4 지역구분(local list) 적용

전개분류법에 공통적인 지역 구분표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Cutter(1891-93, 8)는 첫째, 크게 주제에 따라 하위 구분을 지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지역 구분표의 기호는 모든 클래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조기성이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

다. 지역구분표의 기호는 대부분 숫자를 사용하였는데 기본 기호로 2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4자리 숫자까지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지역구분은 '82'이며, Nova Scotia 주는 '829'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Prince Edward Island 주는 '8295'이다.

지역구분의 순서는 지구를 '11'로, 전반적인 여행에 관한 전집은 '12'에 배치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북극과 남극으로 확대시켰다. 바다와 섬을 '15'에 배치하고, 인접한 대륙과 섬을 세분화하였다. 대륙구분은 유럽(30), 아시아(60), 아프리카(70), 아메리카(80), 남아메리카(98) 순으로 배열하였다. 대륙 내에서 국가 구분은 고대 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지역을 배열하였다. 즉, 고대 그리스 및 로마(31),

그리스(32), 이태리(35)에서 스위스-프랑스-스페인-영국-네덜란드-독일-스칸디나비아-북부 유럽-러시아-동부 유럽-남동부 유럽, 그리고 유럽의 터키(59)가 배열되었다. 이 배열은 고대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역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터키에서 유럽이 끝난다.

다음으로 아시아(60)가 시작되는데, 유럽과 인접한 아시아의 터키(601)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타인(61), 아라비아(62), 서남아시아(63), 중앙아시아(64), 시베리아(65), 중국(66), 일본(67), 동남아시아(Further India, 68), 인도(69)로 끝난다. 이 순서도 터키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과 중국이 연결되는 통로와 유사하게 배열되어 일본을 거쳐 동남아시아, 인도로 이어진다. 아프리카는 이집트(71)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을 따라 남아프리카로 내려온 후, 대륙의 서쪽을 따라 사하라 사막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아메리카(80) 대륙은 북아메리카(81), 캐나다(82), 미국(83) 순으로 연결되는데, 캐나다는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821)에서 동부로 배열을 하였지만, 미국은 뉴잉글랜드(84), 중부 대서양 연안 주(85), 남부(86), 걸프만 주(87), 남부 미시시피강 주변 주(88), 서부(89), 북부 미시시피강 주변 주 혹은 오대호 주변 주(90), 북부 서부(91), 대평원 지역(92), 로키산맥 주(93), 태평양 연안 주(94), 멕시코(95),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96), 서인도제도 및 카리브해(97), 남아메리카(98), 브라질(99) 순으로 이어진다(〈표 6〉 참조).

〈표 6〉 지역구분표

11 The World 〈이하 생략〉	63 South Wester Asia
15 Oceans and islands 〈이하 생략〉	64 Central and Northern Asia, Russian Asia generally
30 Europe (301-308 periods in history.)	65 Siberia
31 Greece and Rome, 'Classic'	66 Chinese Empire, China
32 Greece	668 Corea
33 Byzantine Empire	67 Japan
34 Modern Greece	68 Further India
35 Italy	69 India
36 Rome, city, kingdom, republic, and empire	70 Africa
37 Central Europe, Tyrol, Alps	71 Egypt
38 Switzerland	〈이하 생략〉
39 France	80 America
40 Spain, and The Peninsula 〈이하 생략〉	G80 Geography of America
60 Asia	81 North America
61 Palestine, Holy Land, Bible regions	82 Canada, Dominion of
62 Arabia	83 United States
	84 New England or North Atlantic States
	85 Middle Atlantic States
	86 The South
	〈이하 생략〉

지역구분을 DDC 초판과 비교하면, DDC는 유럽의 경우 주요 핵심 국가 중심으로 나누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Dewey 1876) 전개분류법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표 7〉 참조). 이러한 방법은 아시아의 지역 구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중국, 일본, 아라비아, 인도로 크게 구분한 후, 세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을 세분하는 순서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지역구분 순서는 DDC 초판과 전개분류법은 일치한다. 하지만, 국가별 구분에 있어서 DDC 초판과 전개분류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 배열에 있어서 DDC 초판은 지역적 연결이 명확하지 않지만, 전개분류법은 브라질(99), 파라과이(991), 우루과이(992), 아르헨티나(993), 안데스 및 태평양 연안(994) 순으로 지역적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

다(〈표 8〉 참조).

LCC의 유럽 지역 구분은 유럽 역사 구분에서 나타나는데, 영국을 제외하면, 중부 유럽, 서부 유럽, 동부 유럽, 북부 유럽, 남부 유럽, 발칸 반도로 구분하였다. 배열 순서에 있어서 LCC의 지역구분은 전개분류법의 지역구분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표 9〉 참조).

전개분류법에서 지역구분의 사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하위 클래스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2표에 역사(F) 클래스에 유럽 역사(F30), 프랑스 역사(F39)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지리와 여행(G) 클래스에서도 유럽 지리와 여행(G30), 프랑스 지리와 여행(G39) 등이 표시되어 있다. 둘째, 주기에 지역구분표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다. 예를 들면, 제4표의 역사(F) 클래스와 지리와 여행(G) 클래스에 'use the full place list.'의 지시가 있다. 그리고

〈표 7〉 듀이십진분류법(초판)의 유럽 분류

940 유럽	945 이태리
941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946 스페인 및 포르투갈
942 잉글랜드	947 러시아
943 독일과 오스트리아	948 스칸디나비아
944 프랑스	949 기타 유럽국가

〈표 8〉 듀이십진분류법(초판)의 아메리카 분류

970 북아메리카	980 남아메리카
971 브리티시 아메리카	981 브라질
972 캐나다	982 아르헨티나 공화국
973 ~ 미국	983 칠레
977	984 볼리비아
978 멕시코	985 페루
	986 뉴 그라나다
	987 베네주엘라
979 기타	988 기아나
	989 기타

〈표 9〉 미의회도서관분류법의 유럽 역사 분류

DA1-995	영국 역사
DAW1001-1051	중앙유럽 역사
DB1-3150	오스트리아, 리헨슈타인,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역사
DC1-947	프랑스 역사
DD1-(905)	독일 역사
DE1-100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
DF10-951	그리스 역사
DG11-999	이태리 역사
DH1-925	저지대 국가 역사. 베네룩스 3국
DJ1-(500)	네덜란드 역사
DJK1-27	동유럽 역사
DK1-949.5	러시아 역사
DK1-1180	북유럽 역사. 스칸디나비아
DP1-402	스페인 역사
DP501-(900.22)	포르투갈 역사
DQ1-851	스위스 역사
DR1-2285	발칸반도 역사

언어 일반(X11) 주기에 지역구분표(local list)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다. 제5표부터 여러 클래스의 주기에 'With the local list.'란 지시가 있다. 제4표에서만 'place list'란 용어가 일부 등장했지만, 제5표부터는 'local list'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 3.5 전개분류법의 평가

일반적으로 도서관 분류법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요소는 주류 배열순서가 자연의 순서와 일치 여부, 주류의 보편성, 클래스의 확장성과 상세함, 기호법의 경제성과 단순함, 색인, 다른 분류법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장단점 분석 등이 있다(Sayers 1915-16, 83). 이중 4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전개분류법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 배열순서가 자연의 순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Sayers는 전개분류법의 주류 순

서가 자연세계의 순서와 명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질문은 형이상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였다. 하지만 주류의 순서는 진화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전개분류법을 DDC 초판과 비교하면, 전개분류법은 클래스들이 상호 균등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DDC는 균등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DDC에서 문학과 언어는 자연적으로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학과 역사도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는 DDC가 가지고 있는 9가지 주류로 한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Cutter는 서가 배열에 있어서 주류 배열 순서에 따라 도서를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미는 전개분류법의 주류 배열 순서는 후세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Cutter는 크게 고려

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클래스의 확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를 고려할 때, 해당 클래스는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존하는 주제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표에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분류표 어디 곳에서는 해당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Sayers는 전개분류법(제7표)의 클래스는 이상적인 보편성을 가진 시스템이라 칭찬하고 있다. 전개분류법과 비교하여 DDC나 SC는 세부적이지 못하며, 특히 DDC는 더 많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ayers 1915-16, 85).

셋째, 기호법의 경제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개분류법은 문자를 사용하는 순수 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상적이다(Sayers 1915-16, 85). SC는 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본다면, 전개분류법을 문자만 사용하는 순수기호법 체계라 말할 수 없다. 클래스 기호는 문자만 사용되지만, 지역구분표와 결합되면서 숫자가 첨가되고, 저자기호가 포함되면 혼합기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적인 기호법은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유연해야 하며, 단순해야 하며, 조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결해야 한다(Sayers 1915-16, 86).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 전개분류법의 기호법은 쉽게 확장 가능하여 매우 유연하며, 가능한 모든 분야를 하위 클래스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조기성에 있어서 형식구분과 지역구분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기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Sayers는 전개분류법은 단순성 측면에서 논란

의 여지가 있지만, DDC나 SC에 비하면 유연하고, 간결하고, 조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ayers 1915-16, 87).

넷째, 분류시스템의 색인은 전문성과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분류시스템에 있어서 색인의 전문성은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분류기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 다른 분류시스템은 이 전문성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SC는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분류기호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SC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주제 색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Sayers 1915-16, 88). 반면에 전개분류법의 주제 색인은 제한은 있지만 상관색인 형태로 되어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Cutter의 전개분류법은 당시 도서관에서 DDC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창안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서관 장서 규모가 다양한데 DDC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Cutter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서 규모의 도서관에 적합하며 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전개할 수 있는 전개분류법을 발표하였다. Cutter의 전개분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크게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의 배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개분류법은 철학과 종교, 역사와 지리,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예술, 언어와 문학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 순서가 논리적이며 진화적이다. 둘째, 기호법에

있어서 전개분류법은 문자를 사용하는 순수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전개분류법은 분류기호 외에 저자기호를 포함하여 실제 장서를 서가에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검색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분류표의 전개 측면이다. 전개분류법이란 이름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전개분류법은 장서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7개 표로 이루어져 있다. 제1표에서 제2표로 전개는 자연과학 분야가 확대되었고, 제2표부터 전개는 전 주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넷째, 지역구분 적용으로 각 대륙별 지역구분을 지역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나열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연결되며 터키를 거쳐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언으로 첫째, 전개분류법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를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전개

분류법 제7표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채택하지 않았거나, 사용하다 다른 분류법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없다. 여러 학자들이 전개분류법이 논리적이며 학술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도서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장서량이 증가하면서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장서를 재분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둘째, 전개분류법과 다른 분류법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개분류법과 LCC, DDC의 관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 LCC는 전개분류법의 주류배열체계를 채택하였지만 기호법에 숫자를 채택하여 순수기호법을 포기하였는지, DDC와 비교할 때, 여러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 Brown, J. D. 1906. *Subject Classification: With Tables, Indexes, Etc. for the Sub-Division of Subjects*. London: The Library Supply.
- [3] Cutter, C. A. 1891-93. *Expansive Classification: Part 1: The First Six Classification*. Boston: C. A. Cutter.
- [4] Dewey, M. 1876.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Kingsport, TN: Kingsport Press. [online]  
 <<http://www.gutenberg.org/files/12513/12513-h/12513-h.htm>>
- [5] Miksa, F. L. 1974. *Charles Ammi Cutter: Nineteenth-Century Systematizer of Libraries*. Ph.D. diss., Graduate Library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US.
- [6] Sayers, W. C. B. 1915. *Canons of Classification: Applied to "The Subject", "The Expensive"*.

*"The Decimal", and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A Study in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Method*. London: Grafton.

[7] Stromgren, P. 2004. *Charles Ammi Cutter: Library Systematizer Extraordinaire*. Northampton, MA: Forbes Library. [online]

<http://forbeslibrary.org/info/library-history/charles-ammi-cutter/>

[8] Weihs, J. 2010. "A Brief History of Classification: Part 4." *Technicalities*, 30(4): 15-18.

[9] Winke, R. C. 2004. "The Contracting World of Cutter's Expansive Classifi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8(2): 122-1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